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6.5.20.(수) 17: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홍보디자인부	책임자	부장	이시종	032-290-2045
		담당자	대리	김동현	032-290-2014

“문자와 해양의 가치를 함께 잇는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 인천 지역 대표 두 국립박물관 간 협력 기반 마련
- 개항과 교류의 도시 인천에서 문자와 바다를 매개로 한 새로운 문화 협력 모델 구축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은 5월 20일(수)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자와 해양 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시·교육·학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천을 대표하는 두 국립박물관이 협력함으로써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합문화도시 인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양 역사와 문화, 해양 산업과 생활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해양 전문 국립박물관으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해양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 기록문화를 연구·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세계문자 전문 박물관으로, 문자와 문화의 다양성을 조명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 및 문자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교육 공동사업 발굴 △해양 및 문자 역사·문화 분야 공동 조사·연구 등 학술 교류 △문화행사·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등 공동 행사 개최 △양 기관 홍보 콘텐츠 및 매체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강화 △소장 자료 및 시설 자원의 상호 활용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교류의 역사’에 주목해, 바다를 통해 이동한 사람과 언어, 기록과 문화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전시 콘텐츠 개발 등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적 서사를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김명인 관장은 “해양은 인류 문명과 교류를 연결해 온 공간이며, 문자는 그러한 교류와 기록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매개”라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 이미지 자료 1식. 끝.



[사진1]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

(원)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 (오) 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사진2]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

(원)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 / (오) 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